

월요광장

공직과 성직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께서 내가 출생한 직후에 유아 영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

나는 지난해 늦가을 대입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카톨릭 교우에게 양초 한자투를 선물하였다. 양초는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양초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그리스도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내가 양초를 선물한 까닭은 우선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이 양초를 닮아서였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사회를 위해 양초와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는 바람에서였다.

카톨릭에서는 귀한 물건을 새로 구입하면 그 물건을 사용하기 전 하느님의 축복을 구하는 의미로 신부님의 강복을 받는 의식이 있다. 내가 구입한 양초는 독일에서 귀화한 사람이 벌꿀집을 사용하여 손수 만든 것으로, 촛불을 켜면 벌꿀냄새가 나는 귀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양초에 신부님의 강복을 받아 선물하고 싶어서 나는 이 양초를 들고 우리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보았다.

우리 성당은 조그마한 시골성당으로 신자가 수가 적어서 신부님이 없는 공소였는데, 몇 년 전에야 비로소 본당으로 승격하여 지금은 신부님이 상주하고 계신다. 나는 신부님께 양초의 강복을 부탁드렸더니 신부님은 그 용도를 물으셨다. 나는 학생이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청원기도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신부님은 다시금 조심스럽게 물어 오셨다. "수능시험은 어떤 학생이 잘 본다고 하여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시험은 아닌 것이지요?" 신부님은 양초를 강복하기 전 그 양초를 켜고 기도한 사람의 자녀가 수능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학생이 낙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수능시험은 낙방하는 사람이 없는 시험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니 후 가져간

양초에 강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잠자던 내 양심 위로 한 방울의 맑은 이슬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대입수험생 부모에게 기도용 양초를 구하여 선물하기 전 기왕이면 신부님의 강복을 받아 전해주려던 나의 무심했던 선의는 신부님의 이 한 말씀으로 어느덧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무심하게 수행했을 과거의 공직생활을 반추해 보게 하였다.

그렇다. 성직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직책이다. 이러한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 사소한 잘못도 없게 하는 것은 모든 성직자들의 의무요 당연한 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당 신부님도 자신이 강복한 양초로 기도한 부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행여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셨을 것이다.

얼마 전 교황 베네딕도 16세가 카톨릭에서 가장 존엄한 성직인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셨다. 카톨릭 역사상 교황이 순수한 자의에 의해 교황직을 그만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교령으로 성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교황의 고뇌 어린 결단은 성직이 얼마나 신성하고 무겁고 존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며칠 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더불어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새로운 공직을 맡게 되었다. 공직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한 점 오류도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직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시골성당의 신부님이 양초 한 자투를 강복하는 일상적인 의식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열려줬듯이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게 신중하고 공정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마성당의 교황님이 교령을 이유로 그 존엄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도 어떤 이유로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이란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성직보다 훨씬 더 큰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새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그들의 공직이 성직처럼 신성하고 존엄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시골성당의 신부님처럼, 그리고 로마성당의 교황처럼, 그래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고 빈틈없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기를 기원한다.

기고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조영기 광주전남지방방무청장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중의 하나로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병역명

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역명문가 신청자격은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 및 사촌형제)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40일간) 광주전남지방방무청 운영지원과(062-230-4420)에서 접수받는다.

병역명문가에게는 인증패와 명문가증을 제작하여 교부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의 전당에 가문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영구히 게시하고 있으며, 유적지·사찰과 국·공립시설 이용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수가문으로 선정된 20가문에 대해

서는 대통령 표창 등 상장과 정부차원의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병역이행자 총인원이 많은 가문인 1순위이며, 병(兵) 의무복무 인원과 병(兵) 총 복무개월이 많은 가문순으로 선정되며, 전사자(순직자)가 있는 가문은 우대하여 선정하게 된다.

행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 1363 가문, 광주 전남지역에는 88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어 있다. 선열들의 애국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병역명문가찾기 사업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의 자긍심과 숭고함을 일깨워주어 우리 국가를 튼튼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칼럼

판사와 야근



양형권 광주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

우선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건을 충분한 심리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뇌리를 지배하다 보니 느긋하게 사생활을 즐길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요즘 사건들은 과거에 비해 어찌나 복잡한지, 또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의 주장은 또 얼마나 다양하고 치열한지 모른다.

때문에 필자나 주변의 판사들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다반사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한 선배 판사님은 "일은 근무시간에 해야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는 것은 무능한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런 선배 판사님도 아침에 한 시간 일찍 나와 저녁에는 정시보다 2시간쯤 늦게 퇴근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었다.

앞서 선배 판사님같이 시간을 쓰면 주말 근무나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천성이 게으르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 습성을 가진 필자는 야근이 생활화돼 주말이나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일반직원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느냐" 하시는데 그때마다 필자는 영무새처럼 "판사 일은 일반직원이 못하고 판사가 직접 해야 해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일이 많으면 판사 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필자는 또 "판사 수를 늘리고는 있는데 사건 수가 더 빨리 늘어나서 마한가지예요"라고 답하곤 했었다.

야근을 할 때 제일 괴로운 계절은 여름인데 여름밤에 야근을 할라치면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 괴로움을 겪곤 했다. 이에 필자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서 근무할 때는 어떤 고등부장님이 모기향을 다량 구입해 각 배석판사실에 돌리기도 하셨다.(몇 년 전 창문에 방충망을 달아 모기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또 괴로운 것이 밤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견디며 일하는 것인데 필자는 할 수 없이 반바지를 입고 란닝

셔츠 바람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여관사가 왼쪽 배석판사로 배치돼 올 여름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기록을 싸들고 에어컨이 있는 집에 가서 야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필자의 둘째 아들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며 전자사전에 저장해 놓은 인터넷소설을 탐닉하는 것이 심해질 때면 계절에 상관없이 기록을 싸들고 집에 가 둘째 아들 책상 옆에 기록을 펼쳐놓고 감시하며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일은 능률이 오르지 않고 심지어 당장 급하지 않으면 기록을 펼치지도 하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싶다. 요즘 판사의 재판에 따가운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야근에 대해 장황하게 썼다. 물론 야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재판을 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회적 교육 의무화 시급

최근 친모가 3살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자녀 폭행·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에도 부부가 장난감으로 아들을 때리고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숨진 어린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평소에도 삼삼오오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만행은 아동의 전신에 난 멍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들 가해 부모의 특징은 '자꾸 보낸다'거나 '시끄럽게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등 사소한 이유로 친자식을 학대하고, 비교적 젊고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점. 또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3살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비정한 친모도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문제 전문가들은 부모로부터 폭력·폭언 등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부모가 될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똑같은 형태로 아동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성범죄만큼 재발방지에 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나 대책은 미흡하

다. 지난 201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친권행사를 제한한 법안을 제정한 이웃 나라인 일본과는 크게 비교가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사례에서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부적절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책가지를 아이들이 부모가 될 경우 자신의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공부한 바도 없어 모르는 것이 솔직한 표현

일 것이다. 철부지 부모가 늘어나는 것과 점점 늘어나는 부모의 아동학대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신음하고 있다.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적 장치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교육에 부모교육, 아동 인권과 관련된 수업의 의무화해 어떤 것이 아동 학대인지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개개인의 가족 문제로 방치하거나 부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폭력성 게임 심취한 10대의 무차별 살인

부모를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은 10대가 할아버지의 생일 모임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가 잠을 자던 친척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둘렀더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김모씨 집에 김씨의 조카(19)가 담을 타고 들어가 거실과 방에서 잠자는 친척 8명을 흥기로 찔러 작은 아버지 김씨가 숨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 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한다. 김 군은 평소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친척의 태도에 불만을 품다가 이날 할아버지 생일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 군은 두 달 전부터 칼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무찌르면 캐릭터 등급이 상승하는 게임에 심취했다고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인 이 게임은 폭력성이 높은

것으로 이용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김 군이 흥기로 사용한 등산용 칼도 게임에서 영향을 받아 수갑, 도끼 등을 함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단순하지만 지난해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짙은 게임에 젖어든 게 극단적인 화를 부른 셈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이 잇따르는 것은 이러한 게임과 영상 등에 자주 노출되면서 폭력에 무뎠던 데 그 원인이 있다. 당국과 포털사이트 측은 폭력성이 짙은 불법 게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하인들도 잔인한 '3포족' 관련 영화 제작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불안·우울 등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화 및 상담 등 적극적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용 완구 환경호르몬 범벅이러니

광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완구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들 완구점의 완구·학용품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데다 인종마크 미부착 등 법을 어긴 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최근 초등학교 앞 완구점에서 취급하는 29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완구류 2개 제품에서 각각 11.3%, 13.8%씩 검출됐다고 한다. 이는 기준치(0.1%)를 무려 113배, 138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장신구 4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125배나 초과 검출됐으며, 다만 장신구 2개 제품에서도 니켈이 기준치를 11~21배 이상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제품에 법규상 경고문구를 표기하거나 인종마크를 부착해야 함에도 아무런 표시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

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물질로, 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들 완구점의 완구·학용품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데다 인종마크 미부착 등 법을 어긴 채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완구와 장신구, 학용품 등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후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총 29개 제품 중 34%인 10개 제품이 KC마크가 없거나 허위 부착된 채 판매됐다. 특히 제조자, 주소 등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누락된 제품도 19개나 됐다 고 하니 약력 사업자들의 상흔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의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온갖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대비에 소홀해선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불량품 지도·단속 강화에 나섰다니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이나 완구점 주인 및 학부모들의 신고정신도 필히 요구된다.

無 等 鼓

지난해 발행된 런던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는 많은 화제를 뿌렸다. 1100년이 넘는 영국 왕립조폐국 전통을 깨고 영국 최고순도 순도 99.9% 1kg 대형 금화(약 1억 6000만 원)가 발행해서다.

올 초에는 중국이 최초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라오닝(遼寧)함을 기념해 제작한 주화가 인기였다. 액면가 2000위안(약 33만 원)이었던 기념주화는 한 달도 안돼 최고 9만 위안(약 1500만 원)까지 뛰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기념주화는 국가적인 행사나 역사적 사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또 행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화를 말한다.

주화 발행처인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주화는 1970년 발행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 세종대왕, 거북선 등이 새겨진 금·은화 12종을 발행했었다. 이중 액면가 2만 5000원이었던 세종대왕 초상은 경매에서 12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 올림픽, 대전 엑스포 등 대

규모 행사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시리즈 등 30여 종이 넘는 기념주화가 발행됐다. 특히 2012년 발행된 여수엑스포 기념주화는 10년 만에 금화와 은화 형태로 발행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념주화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신장된 흑인의 지위는 2009년 제2 뮤지션 듀크 엘링턴을 흑인 가운데 처음으로 기념주화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2011년 쓰나미로 일본 리쿠젠타카타시 해변 7만 그루 소나무가 모두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일본인을 위로했던 '기적의 소나무'는 조만간 기념주화로 제작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됐던 승례문 복구 기념주화(액면가 5만 원)가 오는 4월 30일 발행된다. 지금까지 발행됐던 주화와는 달리 축하와 함께 '반성'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주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